

전주시, 한지산업 발굴·육성 적극지원

관련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닥나무 재배단지·한지 공동판매장·한지장 선정 등 추진

전주시가 전주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책을 제정하는 등 한지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주시는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의 공급과 한지산업 육성, 한지장 지정 등 전주 한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전주시 한지장과 한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적 △사업지원의 근거 및 주요 지원대상 사업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한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통한지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주한지장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시민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안)가 확정되면 전주한지의 전통 계승과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 이를 닥나무 재배농가와 닥원료 생산자, 전주한지 제조업자 등이 추진하는 한지육성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는 전통한지의 우선구매 촉진과 더불어 전주한지장을 지정하는 등 전주한지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힘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한지산업의 발굴·육성·홍보 및 지원, 전주한지장 심사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주시 한지위원회도 설치된다.

시는 올해 한지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전주한지 공동판매장 조성, 한지장 선정, 전주한지 샘플북 제작, 수목지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 전주한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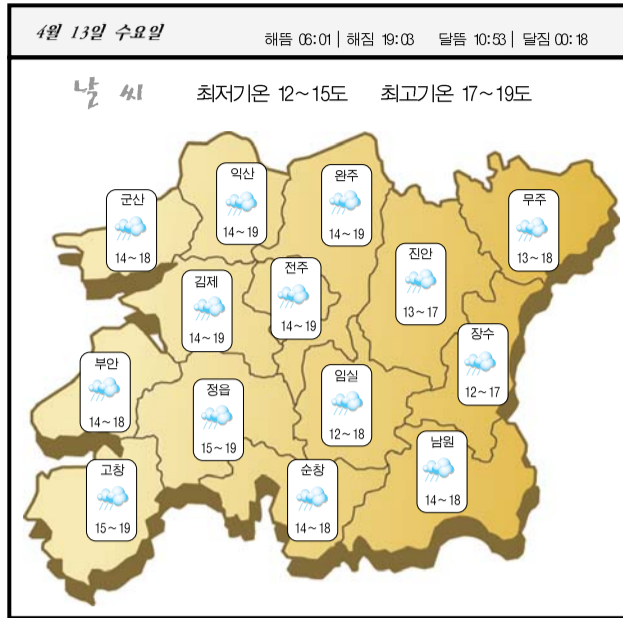


전북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 12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사)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에 송하진 도지사(사)와 신종화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세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지산업 육성과 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 재배단지도 조성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현재 한지생산 원료인 닥나무의 수급 개선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현재 3ha규모의 1차 재배단지 조성을 목표로 재배가능 농가 파악 및 생산 장려금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중

인등 하봉마을에 500여주의 닥나무를 심었으며, 향후 생육관찰은 물론 재배 가치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닥나무 안정적 공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한지는 한복과 한옥 등과 더불어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콘텐츠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한지산업 육성과 한지의 세계화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수도 전주를 대표하는 자원으로

보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전주시 홈페이지(<http://www.jon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오는 5월 1일까지 전화(063-281-2931)와 팩스(063-281-2622), 전자우편(judl@koreakr)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전북도, 임업인 전문교육 추진

5월 단기소득반·6월 기계장비반·10월 산림경영계획반

전북도가 도내 임업인들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임업인 전문교육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엔 추진되는 교육은 전역 도비로 지원되며 교육은 전역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이 진행한다. 교육내용으로는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기술, 임업기계장비 사용법, 산림경영계획 작성 등의 전문임업 기술 교육이 중심이 돼 성공한 우수 임업인과의 만남을 통한 경험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엔 추진되는 임업인 전문교육은 3개 과정으로 단기소득 임산물반(5월)은 고사리, 호두, 산채 등 단기 소득 임산물의 재배기술 교육 및 우수 임업인과 만남을 통한 현장 노하

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 또한 임업기계장비반(6월)에서는 체인톱, 예초기 등의 안전한 사용·정비법, 응급처치법을 교육받고 현장실습도 할 수 있다. 이어 산림경영계획반(10월)에서는 임업인 소유의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림조사법,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법 등의 이론교육 및 실습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도 산림당국은 "산림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임업인 스스로 임업전문기술을 습득하고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한다면 분명히 '산림소득 향상'이라는 보답을 믿고 노력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도노인복지관 낙상에방운동 호평

전북도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노인복지관의 낙상에방운동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평판이다. 도에 따르면 전라북도노인복지관은 올해 3월21일부터 전라북도체육회와 연계해 낙상에방운동을 신규 개설 추진하고 있다. 노인층 낙상사고는 골절이나 뇌손상 등으로 이어져 장기간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는 낙상에방운동은 복지관 이용자들로부터 호응과 함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도체육회에 따르면 낙상에방운동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근력과 유연성 강화에 탁월해 이용 어르신들의 호응에 따라 지속 지원될 것이다./정영수 기자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전북수산물기술연구소, 130 어가에 126억원... 지난해 대비 22% 증가

12일 전북수산물기술연구소(소장 김유곤)는 올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130 어가에 126억 2,000만원의 융자금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원금액(108어가에 대해 103억원) 대비 22% 증가한 수치로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 경영부담완화와 국내 배합사료 가격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면허,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어류, 새우류, 패류 양식어가 해당되며 어가당 지원되는 한도액은 2억원으로 지원금리는 연 1%이

며 1년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사업자원은 금융자금 100%(정부가차보전사업)로 지원된다. 현재 전북수산물기술연구소는 금배정에 따른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신청한 총 153 어가 중 자금범위 내 1순위자 130 어가를 선정했다. 나머지 23 어가는 예비후보자로 선정 완료했으며 1순위는 5월 말까지 융자 지원될 예정이며, 2순위는 1순위 융자가간 경과 후 여유자금에 대한 예비 대상자로 7월 말까지 자금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전북수산물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앞으

로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어가 경영부담 완화 및 경영 위험을 해소하고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어가에 대한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이스타항공, 올해 두 번째 항공기 도입

이스타항공이 2016년 두 번째 신규 항공기를 도입 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2일 B737-800 항공기 1대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번 도입기는 국내선 운영 후 5월 취항 예정인 인천-후쿠오카, 7월 취항 예정인 인천-삿포로(치토세) 노선 등 중단거리 국제선 노선에 운영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보유 항공기 중 제작년도가 짧은 항공기이며 보잉 스키인테리어(Being Sky Interior)와 유선형 디자인의 천장 등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총15대의(B737-700기종 3대, B737-800기종 12대) 항공기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지속적인 항공기 도입을 통해 총 17대의 항공기를 연내 운영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김정식 대표는 "짧은 제작년도의 최신 기종 항공기 도입을 통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항공여행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신규항공기 도입을 통한 국제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항공여행 대중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신광명기자

